

융합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오미섭^{1*}

¹호남대학교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Mi-Seob Oh^{1*}

¹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 감독, 부모 애정, 비일관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과 ANOVA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감독수준과,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지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부모의 비일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Key Words** : 학교적응, 융합적부모양육태도, 부모 감독, 부모 애정, 비일관성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how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affection, inconsistency in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intervention to help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KCYPs 2010) using data from the First year 1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 t-Testing,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parenting attitudes were an independent variable having a partially significant eff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s a results, The level of parental monitoring and affection are high, the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gets higher. On the contrary, the level of parents' inconsistency are high, the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gets l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various options to develop promoting positive parenting attitude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Convergence parenting attitudes,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affection, inconsistency

*교신저자 : 오미섭(hidystar@hanmail.net)

1. 서론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가 심하고 다양하여 불안과 고민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예전과는 달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대처능력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들에 즉각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개인의 내적 발달이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생활사건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성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1].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중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게 되면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조절 능력이 생기지만[2],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면 시간과 상황이 점차 흐름에 따라 또래 갈등, 집단폭력, 왕따, 자아존중감 상실, 통제력 상실과 같은 극단적 사고를 저지를 충동적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비행과 범죄에 연루되는 등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관계적인 면에서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게 되며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부모는 자녀의 최초 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을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자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개념화하고 있다[3].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당하는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학교적응을 돕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과정과 발달에 있어 생애 최초의 교육의 장이며, 가정에서의 경험은 이후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미시체계 중 가장 중요한 체계로 설명되어 있으며 [4],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족체계이론에서도 가족 성원의 역기능은 단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역기능으로 파악하며, 그 성원은 가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단순하고 독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다[5].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서주연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의 연구는 본 연구 데이터인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의 양육방식 부분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양육태도 중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등을 강조하며, 남자 청소년의 수치심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6].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위탁부모가 애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7].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을 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학교적응력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을 대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통제와 지나친 간섭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 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 내리고 다양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영역 중에 부모감독, 부모애정, 비일관성으로 설정하여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 감독이란 부모가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긍정적인 관심을 의미하며, 부모 애정이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는 바람직한 양육방식을, 비일관성이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통일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다른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은 2009년 4월 기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활용하여 16개 특별시, 광역시, 시도별 중학교 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목표 표본수에 따라 학교 수와 학교를 결정하고, 추출된 중학교 1학년의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며, 전국의 중학교 78개 학교 1개 학급의 총 2,351(남학생 1,177명, 여학생 1,174명)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9].

3.2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t*-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연구가설

- <연구가설 1>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1-1> 부모의 애정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1-2> 부모의 비밀관성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다.

3.4 연구도구

3.4.1 종속변인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이 개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설문지의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의 10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코딩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곽수란의 연구에서 학습활동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2이며, 학교규칙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0이다[10].

3.4.2 독립변인

독립변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설문지에 제시된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허묘연이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11]. 척도는 9문항 3개 하위요인(부모 감독 3문항, 애정 3문항, 비밀관성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코딩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감독 0.76, 애정 0.82, 비밀관성 0.61이다.

3.4.3 통제변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성별, 가족구성, 부모학력, 가구소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가족구성은 2집단(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외)으로, 부모학력 역시 2집단(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으로 하였다. 가구소득(연간가구소득)은 3집단(0원-2,400만원미만, 2,400만원이상-4,800만원미만, 4,800만원이상-50,000만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분석대상자의 수는 2,351명이며 이들 중 남학생이 50.1%를 차지하는 1,177명, 여학생이 49.9%를 차지하는 1,174명으로 남학생이 조금 많았다. 분석대상자의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 1,837명으로 78.1%,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외’가 514명으로 21.9%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교육수준 중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1,005명으로 42.8%, ‘전문대졸이상’이 1,172명으로 49.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1,340명으로 57.0%, ‘전문대졸이상’이 863명으로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alyzed

Division		collection (Number of people)	(%)
sexuality	men	1,177	50.1
	woman	1,174	49.9
Family structure	father+mother+children	1,837	78.1
	etc.(if not the father+mother+children)	521	21.9
parents education	fath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1,005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s	1,172
	moth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1,340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s	863
household income (annual income)	0 ~ 2,400		529
	2,400 ~ 4,800		826
	4,800 ~ 50,000		864
Total		2,967	100.

<Table 2>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nalyzed subjects

Division		Case number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F (p-value)	Duncan*
sexuality	men	1,177	2.73	0.44	-1.517 (.129)	-
	woman	1,174	2.75	0.40		
Family structure	father+mother+children	1,837	2.76	0.42	4.636 (0.000)***	-
	etc.(if not the father+mother+children)	512	2.66	0.41		
parents education	fath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1,005	2.67	-8.248 (0.001)**	-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s	1,163	2.82		
	moth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1,340	2.69	-8.010 (0.000)***	-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s	853	2.84		
household income (annual income)	0 - 2,400		529	2.66	24.286 (0.000)***	(1,2,3)
	2,400 - 4,800		826	2.73		
	4,800 - 50,000		864	2.82		

36.7%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은 ‘0원-2,400만원미만’이 529명으로 22.5%, ‘2,400만원이상-4,800만원미만’은 826명으로 35.1%, ‘4,800만원이상-50,000만원’은 864명으로 36.8%를 나타냈다.

4.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집단간 점수차이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의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이원분석(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인 집단의 학교적응 수준이 평균 2.76

점(표준편차0.42)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외’인 경우 평균 2.66점(표준편차 0.4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부모학력에 있어서는 먼저 아버지 학력부분에서 전문대졸이상 집단이 평균 2.82점(표준편차 0.43)으로 고졸이하 집단의 평균 2.67점(표준편차 0.4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어머니 학력부분 역시 전문대졸이상 집단이 평균 2.84점(표준편차 0.42)으로 고졸이하 집단 평균의 2.69점(표준편차 0.4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마지막으로 연간 가구소득은 ‘0원-2,400만원미만’이 평균 2.66점(표준편차 0.42)으로 가장 낮았으며, ‘2,400만원이상-4,800만원미만’이 평균 2.73점(표준편차 0.41)이

<Table 3> Impact on the adaptation of junior high school

		Model 1		Model 2	
		b	β	b	β
Control variables	sexuality(woman=0) men	.291	.034	.251	.029
	Family structure (father+ mother+children) etc.(if not the father+mother+children)	-.422	-.033	-.301	-.023
	father education(graduating from high school=0)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s	.784	.091 *	.876	.101 **
	mother education(graduating from high school=0) Professional college graduates	1.066	.122 **	.806	.092 *
	household income	8.098	.058 †	7.547	.054 †
	parentin gattitudes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affection inconsistency			.658 .284 -.126
Constant		26.248***		17.252***	
R ²		0.056		0.217	
R ² Increase				0.161	
R ² for the increase F values				34.617***	
F		6.711***		18.674***	

† p<0.1 *p<0.05 **p<0.01 ***p<0.001

었으며, ‘4,800만원이상-50,000만원’이 평균 2.82점(표준편차 0.4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사후검정 결과는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위계적 회귀분석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제변수인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 통제변수에 부모의 양육태도 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인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의 경우, 전반적으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F=6.711, p<0.001), 이모형의 설명력은 R²=0.056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1에서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모 교육수준($\beta=0.122$, p<0.01), 부 교육수준($\beta=-0.091$, p<0.05), 연간 가구소득($\beta=0.058$, p<0.1)순으로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

이 고졸 이하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부 교육수준 역시 전문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 가구 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모형 1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회귀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8.674, p<0.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R²=0.217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16.1% 증가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변수는 3가지로 부모감독, 부모애정, 비밀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부모감독($\beta=0.292$, p<0.001), 부모애정($\beta=0.127$, p<0.01), 비밀관성($\beta=-0.060$, p<0.1)이 학교적응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부모감독이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애정, 비밀관성 순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애정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비밀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12].

5.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하위 변수는 부모 감독, 애정, 비밀관성 3개로 구성되어있다.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부모감독과 부모애정,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비밀관성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의 감독 수준과,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지고, 반면에 부모의 비밀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긍정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일관적인 바람직한 양육태도가 형성되어질 때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중학생의 방과 후 생활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애정과, 칭찬을 표현할 경우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해준다[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적이지 못할 때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13].

그러므로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행복한 자녀대화법,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체계를 재확인하고 보강 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단선적으로 연구하였지만 부모 양육태도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본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거나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학교 전 학년을 포함한 연구와 학교현장에서의 실험연구와 참여관찰을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및 교사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가족체계, 사회체계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 종단자료 중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보통 패널 자료는 표본의 수가 대량이라는 점과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수 측정도구 차원에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척도의 보강과 척도개발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eung hwan Oh. "School maladjustment factors influence the youth." *Youth Research*, 11 (1), 161-181. 2009
- [2] Hui Won Song. "Poverty, whether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cademic motivation, a sense of psychological well-structured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 of school adjustment." PhD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0
- [3] Fishbein, S., & Ai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5.
- [4] Eun Sun Oh. "Structural analysis of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divorce for children."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7.
- [5] Hong Sik Jo, Se Jin Nam. "The choice of South Korea Social Welfare." Nanam published. 1997.
- [6] Ju Yeon Seo. "Exploratory Study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social adaptation of

- South defect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7] Mi Jeong Kim. "Foster child protection commissio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go - resiliency impact on school adjustment - Gyeongsangnamdo homes around the foster care children." Copper, 104 (0) 99-148. 2007.
- [8] Yu Rim Cha.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parents bereaved adolescents: a resilience perspective."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9]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0.
- [10] Su Ran Gwak. "Children. Youth self-concept and social relations of the impact on school adjustment," 1st Children and Youth Pane Survey Korea Conference Kit, 2011.
- [11] Myo Yeon Her. "Youth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Scale Development."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0.
- [12] So Young Jang. "Effects of affectionate attachment parenting behavior of parents and peers euphoria and a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aptation of the early youth."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2.
- [13] Luthar, S. S., & Zigler, E.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1991.
- [14] Myeong Seon Ha, Sun Bok Lee. "This rearing attitudes and self-perceived elasticity of parents for children impact on school adjustment." *Childhood Education*, 18 (3), 247-258. 2009.
- [15] Yong Jun Gwon, Young Hee Kim. "This self-regulating effect on the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s Gaming and school adjustment." *Cheongsoneonhak Research*, 18 (6), 99-121. 2011.

저자소개

오 미 섭(Mi-Seob Oh)

[정회원]



- 2010년 2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외래강사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레질리언스, 강점관점